

‘無敵’ 전남 태권도 일귀넌 승부사 “無心 정진”

스포츠 포커스

박경환 전남태권도협 전무이사



“이제 동작이 잘 나올런지 모르겠는데요-!”
 탕크같은 추진력과 지고 못사는 강한 승부욕으로 태권도계에서 ‘승부사’로 불리는 박경환(58)전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태권동작을 취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속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0일 오후 전남체육관 충효도장(관장 윤영관). 조용기 전남체육회 회장이나 윤관석 광주태권도 회장등 태권도계 원로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뷰가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쳤던 박경환 전무이사를 어렵게 만났다.
 박전무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1m70cm의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매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 보인다.
 박전무의 건강비결은 역시 태권도를 통한 체력다지기. 일주일에 4~5일 정도 집 인근 체육관에서 까마득한 초등학교 손자뻘 후배들과 함께 맘을 흘리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대부속고등학교 1학년때 태권도에 입문한 박전무는 장흥중학교 시절 권투선수로 활약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권투선수로 대성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새하얀 태권도복과 절도있는 동작에 반해 고교때 늦깎이로 태권도에 입문했다. 그래서인지 박전무는 화려한 선수생활을 보내지는 못했다. 자신의 표현대로 묵묵히 태권도를 익히며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박전무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실력을 연마한 실력파들의 벽을 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선수생활때 못달랐던 태극마크는 지도자로서 달게 돼 여한은 없다”고 웃었다.
 박전무는 지난 1976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제대 후 인도네시아에 사범으로 진출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내로 복귀, 1976년~1985년까지 광주시 북동 전남체육관 2도장을 운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윤오남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와 왕광현 국가대표 코치등 태권도계에서 이름 석자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이영석 광주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박 선배와는 윤관석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집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이다”며 “후배들을 지도할 때는 호랑이처럼 엄했고, 훈련 후에는 형님처럼 자상했다”고 말했다.
 강한 카리스마로 태권도계를 이끌던 박전무는 지난 2003년 전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 취임하면서

이 유감없이 펼쳐지기 때문, 각 시도마다 수많은 태권도 인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견제도 심하다.
 올해 성적이 좋으면 다음해에는 사실상 상위권은 어렵다는 태권도계의 속설이 있을 정도.
 하지만 박전무에게는 이러한 속설이 통하지 않는다. 전남 선수들이 아쉬운 관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심판에게 강한 톤으로 항의를 들어간다.
 물론 판정을 뒤엎기 위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심판들이 자신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강한 어필을 통해 심판들을 주눅들게 하는 일종의 ‘시위인’ 셈이다.
 이러한 강한 승부사 기질과 선수들에 대한 애정으로 박전무는 2006년 7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제6회 세계주니어대회에 부단장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가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또 2007년 5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감독으로 출전, 여자부 1위와 종합1위에 기여하게 돼 지도자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에서는 고양에서 열리는 대회로 지난해 부진을 씻고 종합우승을 노릴 법도 하다.
 하지만 박전무는 “올 해는 아무런 욕심없이 승부를 잡대한다는 마음으로 성적에 대한 욕심을 비웠다”고 말했다.
 박전무의 성적에 대한 무심(無心)이 10월 10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끝까지 지켜질지, 승부사 본능으로 종합 1위를 거머쥘 지 지켜볼 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오남·왕광현씨 등 술한 태권도 스타 양성 현역때 못이룬 태극 꿈 지도자로 대표팀 이끌어

자신의 역량을 꽃 피우게 된다.
 매년 대통령배전국태권도 대회 등 전국대회를 전남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태권도 위상을 전국에 알렸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종합3위를 유지하면서 2005년에는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전자호구와 마지막 날 작전실패로 5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최근 5년동안 전남태권도를 전국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박전무는 태권도 시합이 열리는 날에는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지경이 된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



박경환 전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운데)와 윤영관 전남체육관 충효도장 관장(뒷줄 왼쪽), 이영석 광주태권도협회 전무이사(뒷줄 맨오른쪽)가 태권도 꿈나무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김민정역리원 두암동 미리본@입구7거리 소망치과 뒷집 권상,공화,해일,승진,메이,아름,화솔,지도 수감생모집 ☎(062)232-7017	천상태극동자 중흥동 효동 초등학교 옆 일원로 시주궁합, 신수택일 (점으로 봅니다) ☎(011)609-9723	행정사김종 동구 지산동 법원 앞 법률 무료 상담 ☎(062)225-3053	독도횃집 대인동 대인시장 회 센터 입구 각종할아지연산 전문(해초)인형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25-0027	여수회 광산구 윤남동7단지 목련 초교 옆 자연산 전문 이구찜,해물탕 전문 대표 김영수 ☎(062)952-2018	관광호텔커피숍 수기동 구현대극장앞1층 커피, 맥주, 양주전문 이능한 분위기 ☎(062)225-7991	
원조남원추어탕 각동 동광동C입구 문희출판사 옆 골목 추어탕,숙회,닭도리,낙지볶음 오리로소리주물럭,돼지주물럭,홍어회 ☎(062)265-2613	광주장식백화점 동구 학동904-72 빌립다리 옆 대표 정영규 ☎(062)227-2567	광주브러이리 동구 산수동 두암동 입구 시거리 전복요리 전문점,특수식 정통맥주,단체모임 피로연,각종모임,단체환영 ☎(062)251-4525	스토리 봉선동 하나은행사거리 쌍용APT근처 레스토랑,카페,수입맥주 ☎(062)672-0678	동화세탁소 문흥동 라인@1층 수거배달, 옷수선 ☎(062)267-6432	정든전복가든 옥석동 청정 우유소 옆 전복,전복구이 전복샤브샤브,전복사시미 전복초밥,생태탕,전복삼계탕 ☎(062)951-8959		
부어치킨양산점 양산동 호반@ 신가 주문 후 4인분이면 포장 완료 배달은 없고 가격 저렴 ☎(062)576-3339	심심화포장마차 두암동 미리본@입구7거리 두암동사무소 옆 광어,우럭,낙지,멍게,모듬회,해물탕 병어조림,꽃게탕,낙지찜 ☎(062)233-0277	황수안플라워 서구 능성동315 도지사앞사 옆 축하,근초화,신상선대,한국화원,자연전문 전국 꽃 배달 서비스 ☎(062)366-4545	누렁송아지 북구 유동16-11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승걸 ☎(062)529-2121	유진다방 동구 산수동 오거리 유진탕 지하 이능한 분위기 찾길 대표 선복인 ☎(062)224-3916	진조 (주합점) 주월동 라인@가든@건너 빅스포인트 퓨전호프 소주 주점 ☎(062)676-6001	에덴다방 대인동 소병서 시거리 새로운 커피숍,수시배달 대표 김계슬 ☎(062)224-5233	Violet포크아트 서구 풍암동 풍암고정로맞은편 공예(리플전문),수감생모집(취미반) 인테리어 소품 판매 ☎(062)652-7847
죽본가 북구 용두동 새롬병원 내 한국 전통죽 전문점,배달가능 대표 이병욱 ☎(062)573-9963	꼬꼬갯일치킨 두암동 미리본@입구7거리 두암동사무소 옆 화이디치킨,양파치킨,반찬,시골한생각주 전화 주문시 신속배달 ☎(062)266-0035	한정식부페가마솥 동구대인동25-4 주류안주일절,단체손님 예약 대표 김보수 ☎(062)224-8868	제일꽃유봉 북구 우산동441 화원,부케,꽃바구니,관엽선 전문 대표 심양길 ☎(062)511-9196	주식회사 대형 북구 중흥3동 동부 교육청 앞 3층 인력정비,건물종합관리 준공청소,방역,카페트식당 ☎(062)526-0484	황토장어숙늘구이 송하동 127-108번지 백반,신지직송 손질포장판매 ☎(062)676-7222	귀향정 북구 풍암동 백림호텔 옆 고향맛! 해물샤브생선찜,해물샤브코스요리 대표 문근순 ☎(062)522-2743	전주소주방 양림동 양림주공@앞 품격있는 안주일절 대표 김인옥 ☎(010)7570-2833
산악지전복아구찜회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 맞은편 산악지+회+참전복=30,000원 대표 조영애 ☎(062)573-4478	동광주횃집 북구 두암동 광주병원 옆 농어,광어,우럭,산지생무형,화물집세끼 단체 예약손님 환영 ☎(062)266-2347	헤촌 쌍촌동 체산정 건너 먹자골목 내 바지락 낙지 전문 대표 정복남 ☎(062)372-7014	법무사 정훈연 사무소 동구 지산동 법원 후문 옆 등기,법인설립,개인회생,파산 가사,호적,가압류,가처분 ☎(062)232-3002	항아리횃집 서남시거리 건광신사 뒷거리 무편 추이탕,청국장,돼지갈비,회계소 전문 대표 장진아 ☎(010)9220-8805	하삼생고기&갑자탕 학동 목회예수장 정문 옆 꽃삼겹살 500,우삼겹살 700,갑자탕(대 28,000) 대표 김창규 ☎(062)224-0398	푸른건강원 풍암동 광주대편 E-마트 맞은편 안마,배출,고도음,해물소주,봉어찜,굴치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512-2752	청강한 뜰 연구원 화정동 구구소년원 정문 옆 4대째 이어온 전통 조선참마를 잇기 위한 개인 교습생 모집(6개월 과정) ☎(010)8338-2572